

지역 매 아리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기업

김제시, 2019년 정부합동평가

지표별 목표달성 점검보고회 개최

김제시는 25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박준배 시장 주재로 실과장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2018년실적)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한 지표별 목표달성 점검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2019년 합동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을 목표로 전체 105개 시군 평가지표 중 11월말까지 노력도에 따라 실적 향상이 가능한 33개 지표에 대하여 세부적인 추진상황과 개선방안을 집중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시는 앞으로 관리에 따라 성과 향상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자원봉사 참여율,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수행 등 15개 지표에 대해서는 주간 분석을 통한 실질적인 실적 상승 방안을 마련하고, 9월말 기준 목표를 달성한 39개 지표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7월부터 정부합동평가 우수지자체 달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차례에 걸친 보고회, 실무담당 워크숍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하여 관리역량 향상과 실적 제고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박준배 시장은 "정부합동평가가 김제시의 대·내외 행정력을 객관적이고 다각적으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평가인만큼, 남은 2개월 동안 지표담당 부서장들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김제시의 위상 제고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요촌동, 저소득 독거노인

역사문화탐방 및 중식 지원

김제시 요촌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송해숙·김만중)와 복지기동대는 25일, 관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20명을 대상으로 김제시 역사문화탐방체험을 진행했다.

역사문화탐방체험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체발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 "세계를 찾아가는 맞춤형 테마복지" 중 가을테마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독거 어르신들께 사람의 가을 나들이를 실시하여 행복한 추억을 선물했다.

이번 행사는 김제 아리랑문화마을과 벽골제 일대 견학으로 진행되어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김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으며, 따뜻하고 맛있는 중식까지 지원되었다.

특히, 독거 어르신들의 고독감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추진된 행사만큼 어르신들의 안전과 소통을 위해 협의체 위원 17명도 함께하여 주위를 훈훈하게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백구특장차전문단지 에이엠특장차 준공식 열려

김제 백구특장차전문단지에 환경전문 특장차 제조업체인 (주)에이엠특장차의 준공식이 25일에 박준배 김제시장 및 업체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에이엠특장은 2016년 7월 김제시와 백구특장차전문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 3월에 대지 1만4,570.1㎡, 연면적 6,836.7㎡ 규모로 본 공장을 착공했으며, 7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8년 10월 완공했다.

1999년 설립된 (주)에이엠특장은 환경전문 특장차 제조업체로 압축진개차, 압축진개차,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배출판식, 회전형), 암롤트럭, 재활용품 수거트럭, 진개덤프, 선진화 압축진개차, 선진화 음식물쓰레기수거차 등을 생산중이며 지난해 매출 185억원을 달성하고 올해는 250억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환경 전문 특장차 제조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는 에이엠특장은 전국에 영업사무소 및 A/S센터를 운



25일 환경 전문 특장차 제조업체인 (주)에이엠특장의 준공식이 박준배 김제시장 및 업체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영하여 고객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등 10개국에 수출하여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주)에이엠특장의 준공으로 김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에이엠특장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에이엠특장 운홍식 대표는 "(주)에이엠특장의 환경 전문 특장차는 도시환경에 어울리는 세련된 디자인과 다양한 안전장치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차별화된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시장까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로 나아가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숲에서 놀자" 고산휴양림 프로그램 활발

완주산림교육센터 올해 개관

숲 체험 진행 큰 호응

창의적 사고 배양 및 정서함양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 내에 소재한 완주산림교육센터에서 숲 체험 산림교육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가을의 숲을 만끽하고, 정서함양까지 이뤄지고 있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산림교육센터의 숲 체험 산림교육프로그램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됐다.

지난 7~8월까지 매주 토요일 고산자연휴양림을 찾는 휴양객을 대상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으며, 9월에는 유아 숲 체험프로그램과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 숲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또한 이달에도 숲에서 만나는 인문학, 숲 힐링, 숲 놀이 프로그램 등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올해 개관한 완주산림교육센터는 고



완주산림교육센터의 숲 체험 산림교육프로그램은 지난 7월부터 진행중이다.

산자연휴양림 내 풍부한 산림자원을 이용한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창의적 사고 배양 및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숲과 삶을 연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완주군 산림교육센터는 10명 이상의 산림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사)우드뱅크 교육센터에서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센터를 중심으로 완주군의 산림, 생태, 문화

적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숲과 삶의 연계로 교육, 직업, 여가, 휴양과 문화의 선순환 사이클을 이룰 수 있도록 산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한신호 완주군 산림축산과장은 "고산자연휴양림내 풍부한 산림자원과 연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산림교육의 질을 향상시켜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오는 27일 제2회 아동청소년권리주간축제를 개최한다.

아동청소년권리주간축제 개최

완주군, 오는 27일 청소년수련관서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완주군이 아동권리 인식 확산과 아동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2회 아동청소년권리주간축제'를 개최한다.

오는 27일 열리는 제2회 아동청소년권리주간축제는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직접 추진했다. 사전에 조직된 청소년축제기획단 '청소년이음지기'가 축제 기획부터 진행까지 직접 운영한다.

행사 주체는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완주군청소년수련관이, 주관에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완주군청소년의회,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완주군청소년센터 고대 등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이 참여한 다. '아~놀자'를 주제로 완주군 청

소년수련관에서 펼쳐지는 제2회 아동청소년권리주간축제는 청소년 패션쇼 '나를 보라', 도전 9초, 노래와 댄스경연대회와 기념식이 열린다. 더불어 생존권을 주제로 한 1박 2일 캠프대회, 다채로운 체험부스 및 미디어방, 고민상담 등 4대 권리마당과 청소년라디오 '청년'와 청소년토크쇼, 우정콘테스트 등 관리페스티벌 등도 운영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아동친화도시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아동·청소년 누구나 자신과 관련된 일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이며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대해 아동친화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기자

김제시 공무원, 정부 민생규제 혁신 공모 장관상 수상

보건소 건강증진과 여윤경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규제 완화"

김제시(시장 박준배)가 규제혁신을 위한 전방위 노력을 추진 중에 시 소속 공무원(보건소 건강증진과 여윤경)이 공모한 민생규제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민생규제토론회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시가 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과 창년산업, 신산업, 재난재해 등에 대응하여 국민생활, 기업 활동에서 개선이 필요한 생활불편규제를 국민과 함께 적극 발굴한 노력의 성과였다. 이번에 수상한 우수과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중 국민복지분야로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규제 완화"로 대상안

기본검사에 대장내시경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민생규제 혁신은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민과 기업이 직접 디자인한 민생규제 혁신과제로 삼아 취업 및 일자리, 국민복지, 국민안전, 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활불편 등 분야로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김제시 규제담당부서는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과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으며 주민을 보호하는 한편 다양한 기업 활동 규제를 개선해 혁신 성장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